AI digest 2026-11-14

11월 14일 AI 아침 브리핑

국내 소식을 먼저, 건설·BIM 관련 AI와 공공 AI 사업 소식을 함께 정리했습니다. 첫 항목은 어제 오후 나온 젠슨 황 사임과 정부 대응으로, 지난 며칠 다룬 엔비디아 협력 기사들의 후속입니다.

1. 젠슨 황 사임에 정부 긴급 점검…GPU 26만 장 공급·협력 지속 재확인

구분: 국내 AI 인프라 / 2026-11-13, 연합뉴스 종합

- 엔비디아가 12일(현지 시각) 젠슨 황 CEO의 사임과 콜레트 크레스 CFO의 임시 CEO 선임을 발표했습니다. 사생활 논란과 이사회 독립 조사가 이어지던 중의 결정입니다.
- 과기정통부는 13일 엔비디아 측과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첨단 GPU 26만 장 공급과 기존 협력 사업의 지속 추진을 재확인했고, 국가AI전략위원회도 긴급회의를 열어 공급망 영향과 대응을 논의했습니다.
- 배경훈 부총리 설명에 따르면, 정부 직접 확보 물량(B200 기준 약 3만 5,000장) 중 약 2만 1,000장이 확보됐고 나머지 약 1만 4,000장은 2027년 초 입고 예정이며, 별도 1만 5,000장은 국가AI컴퓨팅센터로 확보 중입니다. NV링크 기반 국산 AI 반도체 연계, 피지컬 AI 공동연구, GTC 한국 개최 추진 등 기존 협력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
- 전략위는 "특정 기업의 경영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"가 필요하다며 GPU 외 NPU 등 컴퓨팅 자원 다변화와 국산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
- 주의: 공급 유지는 회의에서 재확인된 계획이며, 임시 CEO 체제에서 실제 이행은 계속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
제안 (BIM 연계): 공공 부문 AI 컴퓨팅 수급 안정은 BIM 자동 검토 같은 공공 AI 사업의 인프라 전제와 연결됩니다. 국산 NPU 선택지가 넓어지면 온프레미스 BIM 추론 환경의 대안도 늘어납니다.

이미지: 연합뉴스가 기사에 사용한 배경훈 부총리 사진(11월 6일 AI전략위 회의 당시 촬영분). 출처: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113155451017

2. 롯데건설, 스타트업 10곳과 건설 현장 AI·로봇 기술검증(PoC) 결과 공유

구분: 건설·스마트건설 AI / 2026-11-10~11, 전문건설신문 보도

- 롯데건설이 10일 서울 마곡 르웨스트시티에서 '2026 오픈이노베이션 성과공유회'를 열고, 스타트업 10곳과 진행한 스마트건설·AI·로봇·친환경 기술검증(PoC) 결과를 공개했습니다. 서울경제진흥원(SBA)·창업진흥원 프로그램으로 9곳을 선정하고 자체 발굴 1곳을 더했습니다.
- 검증 대상은 바닥충격음 저감 소재(리젠티앤아이 '소일라스틱'), 건설장비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(스패너), 자재 운반·현장 순찰 로봇, AI 기반 작업 기록 및 장비 제어 기술입니다.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와 개선점을 스타트업과 공유하고 후속 사업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.
- 참여 10곳에는 기술검증 우수성과공유금을 지급하고, 롯데건설은 후속 기술 협력과 사업화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- 주의: 기술검증(PoC) 단계 결과로, 실제 현장 도입과 사업화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

제안 (BIM 연계): 장비 데이터 통합관리와 AI 작업 기록은 BIM 4D 공정 관리·시공 이력 데이터와 결합할 수

있는 영역입니다. 대기업-스타트업 PoC-사업화 경로는 국내 스마트건설 기술 도입의 대표 모델로 참고할 만합니다.

이미지: 롯데건설이 제공한 성과공유회 사진. 출처: http://www.ksc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7623

3. 국세청 AI 시스템 구축사업, 예비타당성조사 통과

구분: 국내 공공 AI / 2026-11-13, 아주경제 보도

- 기획예산처가 13일 제9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어 국세청 AI 시스템 구축사업,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,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·타당성재조사 통과를 심의·의결했습니다.
- 국세청 AI 시스템 사업은 국세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는 사업으로, 홈택스 내 AI 전자신고 등 맞춤형 납세 서비스와 AI 기반 신고 내용 검증(탈루·체납 대응 강화)이 핵심입니다. 일부 사업계획을 보완한 뒤 추진됩니다.
- 함께 다뤄진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 사업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.
- 주의: 예타 통과는 사업 착수 자격을 얻은 단계로, 시스템 구축과 실제 성과는 앞으로의 일입니다.

제안 (BIM 연계): 대규모 공공 AI 사업이 예타를 통과한 사례로, 공공 부문 AI 도입의 타당성 심사 기준(비용·편익 산정 방식)이 향후 BIM 기반 공공 서비스 사업화에도 참고됩니다.

이미지: 기획예산처가 제공한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사진. 출처: https://www.ajunews.com/view/20261113162617350